세계 유명 음악인 초청공연 신중히 판단해야

홍 승 찬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지난 5월 2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박은성이 지휘하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이 낭만주의 시대 피아노 협주곡 세곡을 한 무대에 올리는 연주회를 마련했었다. 이 연주회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주자의 무대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매표수익을 기록했다는 점 때문이다.
무려 1,700장이 넘는 순수 매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외국의 유명 연주자의 흥행보다 더 뛰어난 실적이다.

'쓰리 테너'가 온다고 난리들이다. 하기야 경제적 가치로만 따진다면 20세기가 만들어낸 클래식 상품들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으뜸이라고 하니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다. 이제 이들이 나이가 들어 후일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언제부턴가 호세 쿠라, 로베르토 알라냐에, 안드레아 보첼리를 붙여 새로운 쓰리 테너를 꿈꾸는가 하면 '쓰리 소프라노'라는 유사상품을 내놓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의 쓰리 테너가 가지는 위용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가 같은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았다면 아마도 홀로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아마 이처럼 뛰어난 테너를 한꺼번에 셋이나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먼 발치에 앉아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음성이라도 듣는다고 거금을 들일 일은 아닌 듯싶다. 파바로티는 이미 70세를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둘도 예전만은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저음 가수라면 몰라도 체력이 절대적인 고음 가수들이야 한해 한해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이크를 쓴다고 해도 음반에서 들었던 쓰리 테너의 공연실황을 기대하기란 무리가 아닌가 싶다. 게다가 이들 각각이 따로 우리나라를 찾아와 독창회를 가진 바도 있고 지천에 널린 것이 이들의 음반이니 지붕도 없는 대형 운동장이라도 좋다고 기를 쓰고 모일 일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이들을 부르기 위해 짐작도 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하는 이유를 주최측에 묻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도대체 얼마를 벌어들이는 지도 따지고 싶다.



왼쪽부터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유명 음악인 초청공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6월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피아니스트 파울 바두라 - 스코다의 협연 무대가 있었다. 외르크 데무스, 프리드리히 굴다와 더불어 '비인 삼총사'로 불리는 바두라 - 스코다는 20세기가 배출한 거장 피아니스트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80세을 바라보는 지금의 나이에 과거의 영광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꼭 불러들여야 했다면 차라리 소품을 위주로 한 독주회가 나았을 지도 모르겠다. 예정되어 있던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에 초청한 것도 아니고 바두라 - 스코다의 협연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했어야 했나 싶다. 그리고 그 나이에 하필 베토벤의 <황제>를 시도한 까닭도 모를 일이다. 처음부터 손가락이 미끄러졌고 연주자 스스로도 힘겨운 모습이 역력했다. 피아노의 황제로 불렸던 루빈시타인은 연주회에서는 물론이고 음반에서조차 종종 건반을 잘못 누르는 일이 있었지만 이날 본 바두라 - 스코다의 실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 전체를 놓고 볼 때 순간의 일탈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루빈시타인의 배짱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딸리는 이류 피아니스트의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아니었다. 단지 힘이 부치고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벌어진 상황이었다. 정말이지 딱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도 앙코르를 요구하는 박수는 끊이지 않았다. 객석에는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음악도와 주로 음반을 통해 음악을 접하는 오디오 매니어들이 많은 것 같았다. 전자는 스스로 그 나이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박수를 치는 듯 했다. 후자는 음반으로 들은 바두라 - 스코다의 전성기를 추억하며 감상에 젖은 모습이었다. 앙코르로 들려준 슈베르트의 즉흥곡이 베토벤의 <황제>보다는 훨씬 좋았다. 그 보다는 두번째 앙코르곡으로 선사한 모차르트의 <아다지오>가 노쇠한 이 거장에게는 더욱 어울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고집하는 뵈젠도르퍼 피아노야말로 슈베르트와 모차르트에 딱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연주회가 진행되는 동안 콘서트홀 로비에 뵈젠도르퍼 피아노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안내책자를 펼쳐 보니 역시 뵈젠도르퍼가 후원하는 연주회였다. 더불어 한국피아노학회가 후원자로 올라 있었다. 안내책자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날 연주가 있기 전에 이미 한국피아노학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움이 있었고 거기에 바두라 - 스코다가 초빙교수로 초청되어 있었다.

짐작컨대 심포지움이 가장 먼저 계획되었고 그 참에 연주회까지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더욱이 이런 협연무대가 아닌 보다 학구적인 연주회가 어울렸을 것 같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으니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여태껏 쌓은 지혜와 경륜을 후학들에게 풀어놓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얼마나 더 무대에 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휘자 첼리비다케는 겨우 성사된 내한 연주를 얼마 남기지 않고 병석에 누워 결국은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피아니

스트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는 내한 연주를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첼리비다케에 대한 아쉬움은 쉬 가라앉지 않았고 리히테르가 남기고 간 감동 역시 오래도록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와 바두라 - 스코다의 경우는 다르다. 첼리비다케와 리히테르의 경우에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내한 연주였지만 바두라 - 스코다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그러니 그만큼 절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이 있었다. 당시 스턴의 나이는 지금의 바두라-스코다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손가락이 엉키고 미끄러지면서 실수를 연발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 해도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더러 나이가 들어서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주자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리히테르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고 그 나이에 독주회와 협연무대를 연달아 치러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해냈지만, 그런 일은 아무나 해내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욕심내서 될 일도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무대에 머무르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좋은 기억을 남기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는 세상이라면 구태여 이런 말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오래도록 무대를 지키고 있는 동안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도 이름을 알릴 기회를 가지지 못한 많은 무명 연주자들은 좌절하고 또 좌절해야 한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외국 유명 연주자만 찾는 현실에서는 이런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분명 그 실력은 예전만 못하더라도 그 이름값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꾸 불러들이다 보면 정작 실력있는 자국의 연주자들이 설 땅은 자꾸만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쓰리 테너 가 온다고 난리들이다. 하기야 경제적 가치로만 따진다면 20세기가 만들어낸 클래식 상품들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으뜸이라고 하니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싶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무조건적으로 외국 유명 연주자만 찾는 현실에서 그 이름값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는 동안 정작 실력있는 우리의 연주자들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우리 음악계의 현실과 과제

지난 5월 2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박은성이 지휘하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이 낭만주의 시대 피아노 협주곡 세 곡을 한 무대에 올리는 연주회를 마련했었다. 이 연주회를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주자의 무대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매표수익을 기록했다는 점 때문이다. 비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무려 1,700장


피아니스트 김대진

이 넘는 순수 매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내 흥행이 보장된다고 하는 외국의 유명 연주자들의 내한 연주회를 유치한다 해도 달성하기 힘든 매표실적이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안내책자에 김대진이 직접 쓴 자신의 이야기이다. 지금까지의 삶을 기술하는 가운데 그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밝혔다. 그가 아직 귀국 전이었을 때 국내 유수의 어느 오케스트라가 초청하여 국내 무대에 섰었고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무대를 가졌는데 후자의 연주로 받은 개런티가 전자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적더라는 것이다. 물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물었더니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규정상 해외거주 연주자를 그 만큼 더 대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같은 연주자가 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더 많은 개런티를 받고 단지 국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김대진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고부터 이를 악물었을 것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실력있는 연주자가 해외의 이름뿐인 유명 연주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만한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굳게 결심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해내고 만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제2의 김대진, 제3의 김대진이 이 땅에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모자란다. 그래서 능력있는 많은 음악가들이 조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고 아니면 현실에 안주해서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떻고 외국에 나가 살면 어떠냐고 따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근거를 두고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는 없는지 말이다. 지금까지의 업적만으로도 바두라 - 스코다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반드시 무대 위에 세워놓고 박수칠 일은 아니다. 한번쯤 호기심에 쓰리테너를 볼 만도 하다. 그러나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